

에임스, 새 '스킨스 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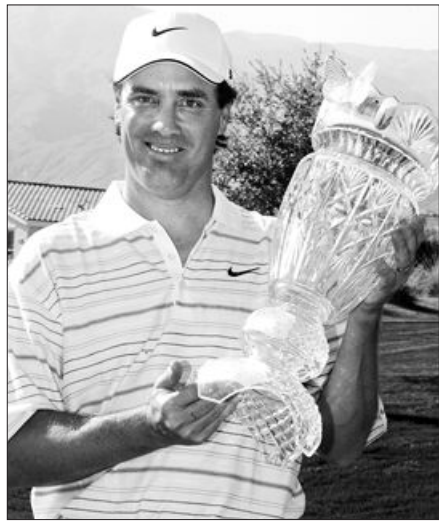
연장 접전 끝 총상금 59만달러

PGA LG스킨스게임 최종

스티븐 에임스(캐나다·사진)가 새로운 '스킨스 제왕'으로 이름을 올렸다.

에임스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트릴리지폴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LG스킨스게임 최종일 연장 승부에 걸린 27만달러를 차지하는 등 모두 59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38만5천달러를 챙긴 프레드 커플스(미국)를 제친 에임스는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기쁨을 누렸다. 첫날 치른 9번홀까지 단 1개의 스킨도 따



지 못했던 에임스는 12번홀에서 이글성 버디로 25만달러를 한꺼번에 벌어들인데 이어 13번홀에서도 버디를 뽑아내며 7만달러를

보태 산두로 뛰어 올랐다.

이 대회에 5차례나 정상에 올라 '스킨스의 제왕'으로 불리는 커플스는 15번홀과 16번홀에서 각각 버디를 잡으면서 21만달러를 추가, 에임스를 추격했다.

7만달러 짜리 17번홀과 20만달러의 '슈퍼스킨'이 걸린 18번홀에서 아무도 승자가 없어 승부는 연장으로 넘어갔고 3번째 연장전에서 에임스는 1m 버디 찬스를 놓치지 않고 성공시켜 우승을 확정지었다.

3번째 연장까지 살아 남았던 존 말리(미국)는 첫날 1번홀에서 2만5천달러를 차지한 이후 단 1개의 스킨도 챙기지 못해 헛심만 쓴 꼴이 됐다.

지난해 92만5천달러를 쓸어들인 프레드 커플스(미국)는 무일푼으로 귀갓길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며

가르고 있다.

27일 대전 남선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06 전국남녀 회장배 피겨스케이팅 랭킹대회 첫날 여자2그룹 쇼트프로그램 경기에서 한 울(청학초 5학년)이 한 마리 백조처럼 빙판을

/연남뉴스

전북 최강희 감독 올해의 감독 후보

AFC 발표



'조용한 카리스마'로 프로축구 전북 현대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려놓은 최강희(47·사진) 감독이 AFC 올해의 감독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

AFC는 27일(한국시간) 올해의 감독상 후보로 최강희 감독과 최광석 북한 여자청소년대표팀 감독, 마량싱 중국 여자대표팀 감독 등 세 명을 압축해 발표했다.

지난 달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북한의 우승을 이끈 김금일과 북한 여자대표팀의 리금숙은 각각 AFC 올해의 청소년선수, 올해의 여자선수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국, 일본, 호주 선수를 모조리 제의해 비난을 받은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는 바드르 알 무트와(쿠웨이트), 칼만 이브라힘(카타르), 모하메드 알 술루브(사우디아라비아)로 압축됐다. 시상식은 29일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롯데 이대호 '올해의 선수'

프로야구 선수들 선정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4번 타자 이대호(24)가 동료들로부터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뽑혔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이종범)는 27일 이대호가 투수 3관왕 유현진(한화)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선수들이 투표로 결정한 '올해의 선수'로 선정돼 야구용품업체 MAX가 협찬하는 100만원 상품권과 제 일약품이 후원하는 1천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대호는 올해 타율(0.336)과 홈런(26개), 타점(88개), 장타율(0.571) 등 공격 4관왕에 올라 22년 만에 타자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선수협은 또 '올해의 심판'으로 최규순 심판을 뽑았다.

시상식은 12월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선수협회 정기총회에서 유소년 선수 50명을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영표 2경기 연속 벤치신세

이영표(29·토론토 화이트 소닉스)가 오른쪽 풀백 패스칼 심봉사의 부상 복귀 이후 2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다.

이영표는 27일 오전 홈 구장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열린 위건 여자축구와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에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영표로서는 오른쪽 풀백 심봉사의 부상 복귀전이었던 지난 24일 유럽축구연맹(UEFA)컵 B조 조별리그 바이엘 레버쿠젠(독일)전에 이어 2경기 연속 결장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하인스 워드팀 포진출 좌절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부상 후환을 떨쳤으나 팀은 대패해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좌절됐다.

와이드 리시버로 활약 중인 워드는 27일(한국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M&T뱅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정규시즌 12주차 경기에서 터치다운 없이 33야드 전진에 그쳤다. 이날 경기 출장이 불투명했던 워드는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반에만 두 번의 터치다운을 허용하며 0-17로 끌려간 피츠버그는 결국 0-27로 완패했다.

표도르 내년 1월 방한... 'M-1' 참가

'얼음왕제' 표도르 에벨리아네프(30·러시아)가 내년 1월 종합격투기 M-1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세 번째 방문한다.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균)은 27일 "표도르를 포함, 러시아 샤프스테르부르크에 소재한 격투기 단체인 '레드 데블' 소속 선수들이 내년 1월20일 국내서 열린 M-1 코리아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M-1대회는 서울과 경남 창원 중 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레드데블 소속 선수는 종합격투기 프라이드FC 챔피언 표도르와 러시아 격투기 강호 로만 켄초프, 아마르 슬로예프, 세르게이 카즈노프스키, 세르게이 비치코프, 블라디미르 제닌 등 모두 9명이다.



28일(화)

- ▲농구대전차 남자부 8강(13 : 20·SBS스포츠)
- ▲FIVB 세계 남자배구 선수권(브라질-이탈리아)(14 : 50·Xsports)
- ▲프로농구(SK-KCC)(18 : 50·Xsports, SBS스포츠)
- ▲도하 아시아게임 남자축구(한국-방글라데시)(23 : 15·MBC)

죽어도 서울대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살아서 북경대학에 입학할 수는 있습니다.

북경대학으로 가는 길... 시험 준비나 문과·자연과학도 가능합니다!

반복학습, 1회독·2회독·3회독·4회독·5회독

중국어: 한자, 발음, 문법, 어휘, 회화

수업 시간: 오전 9:00 - 11:00, 오후 2:00 - 4:00, 저녁 7:00 - 9:00

문의처: 중국어학교, 중국어학원

www.1118118.com.cn

귀댁의 자녀도 무조건 100점! 자신(自信) 있습니다!

중학 | BT | 토익 | 종합반

초·중 영어/수학 100점반

매비 중! 영어/수학 종합반 모방 중!

062-222-6253

메가퍼스트학원